

# 혹시 나도...

## 광주 성매매 업소 이용자 신상정보 통제로 유통 최대 2만명 담긴 파일 거래... 표적범죄 악용 우려

광주지역 성매매 업소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통제로 유통되고 있다.

휴대전화 번호, 장애 유무, 성적 취향 등이 담긴 엑셀파일 형식의 고객 정보가 성매매 업주들의 손에 들어가 그들의 '영업'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원룸·오피스텔 등지에서 은밀하게 영업 중인 신종 변태 영업소들은 이른바 '성매매 이용자 데이터베이스(고객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구축,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성 매수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파일에는 이름은 들어있지 않다.

과거 명함형·A4형식의 전단을 도심 곳곳에 뿌리거나 자동차 전면 유리창에 쏘는 방식으로 성 매수자들을 유혹했다면, 요즘은 업소별로 엑셀파일 형식으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신분이 확인된 남성들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

올 들어 지난 8월 말 기준, 광주경찰청은 도심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영업 중인 신종 변태업소 89곳을 단속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별 고객 데이터에는 적게는 200~300명부터 최대 2만여명의 신상정보가 담겨 있었으며, 휴대전화 번호만 단출하게 적혀있는 업소부터 전화번호는 물론 비교란에 '강제성 여부 등 매너', '성적 취향', '안경 착용 여부나 체격조건' 등을 상세하

게 기록해 둔 업소도 있었다.

업주 상당수는 여중업원들과 강제로 관계를 맺은 전력이 있는 남성들이나 질문을 쏟아내는 사람, 경찰로 의심되는 인물의 휴대전화 번호는 따로 '블랙리스트'로 올려놓고 경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이나 광주지역 5개 경찰서 전·현직 단속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도 이미 업주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단속망을 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데이터 구축 방식은 업주별로 달랐다. 자기 업소를

이용했던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차곡 차곡 쌓아올려 구축한 업소, 수십만~300만원 선에 유통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고 영업에 나선 업소, 성매매 업소를 넘겨받으면서 권리권 형식으로 몇백만원을 얹어주고 데이터를 확보한 업소까지, 고객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수집한 뒤 1명당 50원~300원선에 팔아

치우는 일당도 있으며, 정보의 신뢰도나 업소 이용 가능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을 통해 전해지거나 직접 만나 USB 메모리 스틱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성매수남 이용자 데이터는 퍼들어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광주에서 보편화된 것은 최근 1년 사이라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성 매수남 신상정보가 저기에 유통되

보니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일부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성범죄 소굴로 전락하는가 하면 고객명단에 등록된 남성들의 경우 별도의 표적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 고객 파일이 저기에 유통되면서 신종 변태업소가 원룸촌이나 오피스텔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지 파일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일정 기간 수사한 뒤 모두 폐기 조치함으로써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미 공군 연합 훈련의 하나인 'Vigilant ACE' 훈련이 개시된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 미 공군 소속 F15 전투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교실 소음' 아랑곳없고... 비행훈련 강행

### "수능 코앞인데 광주시민 무시하나" 비난 잇따라

한·미 공군이 지역사회 반대 여론에도 2일 광주 군공항에서 한미 연합 대규모 전투기 훈련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연합 훈련지인 제1전투비행단 정문에서 1인 시위나 항의 집회를 열고 오는 6일까지 5일간 100여차례 전투기 이·착륙이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12일)을 열을 앞두고 군공항 주변과 전투기 항로에 있는 고교를 중심으로 전투기 소음에 따른 학습 지장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주민 반발과 학습권 침해를 의식한 듯 이순진 합참 의장에 게 서한을 보내 훈련에 따른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서한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며 필요성 또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시기적으로 소음피해 보상규모가 대폭 축소된 대법원 판결로 주민들이 격앙된 상태에서 5일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투기 이착륙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요구했다. 대우를 표시했다.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들도 훈련이 끝나 오는 6일까지 출·퇴근 및 점심 시간대를 중심으로 광주 군 공항 입구에서 훈련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강현 대책위 위원장은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범위를 대폭 축소한 판결 이후 수능을 코 앞에 두고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을 추진하는 것은 광주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광산구 사회적 기업 협의회 소속 회원 10여명도 이날 오후 2시에 광주 군 공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공군이 수능 이후로의 훈련 연기나 축소 등을 요구하는 주민 청원마저 외면하고 기존 훈련 기준인 F-5 전투기보다 소음이 훨씬 큰 F-15 전투기 훈련을 강행했다"며 훈련 취소를 촉구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도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운남동 임방울대로에서 '소음피해 외면하는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지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민 구청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는 등 훈련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훈련 시기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수은 노출' 남영전구 대표 등 4명 입건

### 중독·의심중세 49명 달해

집단 수은노출 사고(광주일보 11월2일 6면)가 발생한 남영전구 사업주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은에 노출됐거나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근로자도 49명에 달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철거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수은 노출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남영전구 김모(60) 대표이사, 현장공사 총괄 책임자 장모(53)씨 등 모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청은 또 남영전구에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씨 등은 남영전구 철거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수은에 노출될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노동청은 철거공사가 다단계 하도급을 거쳐 진행된 정황을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해 김씨 등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조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해당 업체가 철거공사 과정에서 수은 약 3kg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적발해 김씨 등 공장 관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철거공사에 참여해 수은에 노출된 근로자 3명도 김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남영전구는 이날 사태 발생 2여일만에 발표한 공식사과문을 통해 "근로자들의 수은 피해 사태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환경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병원비 마련 빈집털이범 검거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털이를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청은 2일 다른 사람의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낮 12시30분경 충남 부여군 외산면 지모(여·69)씨의 집에 들어가 금반지 1점을 포함해 190만원 상당의 보석을 훔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훔친 물건을 광주지역 금은방에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을 찾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기계 제조 선수로 활동했던 김씨는 대학때 감시직 척추염을 얻은 뒤부터 정경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몇년 전부터는 전국을 떠돌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AI 극성인데... 닭 수만마리 밀도축·유통

### 순천경찰, 무더기 적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종닭 수만마리를 불법으로 밀도축·유통한 업자와 무허가 음식점 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순천경찰청은 2일 토종닭을 공급받아 밀도축한 뒤 음식점과 주민에게 공급해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S(65)씨와 P(60)씨를, 산닭이 아닌 도계된 닭을 손질해 유통(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한 무허가 식육판매업자 J(41)씨와 M(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S씨와 P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토종닭을 밀도축해 순천·광양·보성지역의 계곡 주변 산장과 민박집 등 87곳에 8500마리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J씨와 M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계된 닭을 공급받아 개별작업을 하고 내부 세척을 한 뒤 순천·광양지역 계곡 주변의 산장과 민박집 등 72곳에 각각 1만1100여마리와 4500마리 등 1만5500여마리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닭을 공급받은 음식점 157곳 가운데 무허가로 운영된 24곳의 업주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I 확산 등으로 어느 때보다 전염병 예방과 위생 관리가 중요해진데 비위생적인 밀도축이 횡행하고 있다"며 "가축사육업·가축거래 상인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무면허 20대 흡친 차로 사고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흡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될 처지.

○2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순천시 소속 사회복무요원 임모(23)씨는 지난 1일 밤 9시30분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 사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차량 절도 사실이 발각되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절도 등 전과 15범인 임씨는 지난 달 31일 순천의 한 찜질방에서 정모(50)씨의 차량 열쇠를 훔쳐 이틀간 차를 몰고 다녔는데, 경찰에서 그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잠시 잃었는데, 그 사이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진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4층 상가매매**  
(첨단지구,쌍암동)  
(대지-180평, 건물-470평)

1층 (식당)  
2층 (노래연습장)  
3층~4층 (pc방,사무실)

월 수익 (980만)  
(보 1억1천, 용 3억)

**매가 13억**

**2층 상가 매매**  
(나주시 삼영동)

☆ 나주 혁신도시 10분 !!  
(토 205평, 건135평)  
영강고교/영강초교 정문 앞

1층 6칸(울임대)  
2층 2칸(사무실)

(보2천, 용1억2천 - 월수익 200만)

**매가 3억**

**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대지-180평, 건물-470평)

1층 (상가,1칸)  
2층~3층 (룸10개)  
4층 (주택)

월 수익 (450만)  
(보 4,000만, 용 1억)

**매가 7억**

**법률경매**

-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토 500평,건 904평) 감정가 35억4천 → **28억3천** (첨단지구 삼성전자 앞) (1층상가, 120평-2~7층 룠 54개-8층, 주택겸사무실)
- 서구 농성동 (토 86평, 건 263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 지하 (국악연습실) 1층(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 ☆ 농성역 부근, 서구 K지사 부근
- 북구 두암동 (토 44평, 건 166평)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 지하 (점포) 1층 (점포) 2층~4층(주택) ☆두암초교 부근, 도로점 코너자리
- 서구 치평동 (토 3평, 건 90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10층 중 7층 (상무지구 변화가 위치) 유흥지점 운영자 추천
- 북구 유동 (토 240평, 건 818평) 감정가 24억3천만 → **최저가 17억** 1층(점포) 2층~5층(사무실) 지하(주차장)

※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100억)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천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

**010-7384-7800**      **010-6670-9800**      **062-382-5500, 010-6832-9700**

**수익성 상가 (근린시설,통건물)**

- 수원지구 (우미린A.P.T 앞) 4층건물 (대지 144평,건 260평) → 매가 17억
- 상무지구 5층건물 (우리은행) 금융가터 (월수익 1,000만 - 보2억,용6억) → 매가 27억
- 상무지구 상가 5층건물 (롯데마트앞) (대지 122평,건2423평) → 매가 28억
- 광산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5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보 1천,월60만) (용 5천) → 매가 1억1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 상무지구 정면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보1천,월60만) 임대완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보5백,월45만 - 임대완료) → 매가 8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옆 (용4천) (보5백,월42만) → 매가 7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용2천) (보3백,월33만) → 매가 4천5백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윤천의 1번출구 3분 (용2천) (보3백,월32만) → 매가 3천6백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시설, 통건물)**

-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 용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0개 (월리베터이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
- 광양 광명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 매가 3억8천만